# 여야, '국회선진화법' 놓고 기싸움 치열

## 새누리 "'식물국회법' 전락 막게 하루빨리 고쳐져야"

## 민주 "박대통령 주도 법안 1년도 안돼 뒤집기 하나"

정기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여야가 24일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는 등 기선 제압을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이 전날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예고하자 새누리당은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선진화법을 악용하면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선진화법 수명도 오래 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이날은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영원한 다수당도 소수당도 있을 수 없다"며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 잡기에 이용하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수에 의한 폭거', '국회 마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이 '식물국회법' 전락 위기에 있는 선진화법을 이용하면 국민을 설득해 야당의 발목 잡기를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식물화에서 나아가 무생물화가 되지 않기 위해 거대 야당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데다 야당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든지 헌법 제소가 이뤄져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한 점을 들어 '자기 모순'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발의, 여야 합의를 요청해 처리된 것이며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며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도 법 처리 입장에 힘을 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18대 국회 당시 4대강 예산 등의 날치기 사례 등을 돌아볼 때 (선진화법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새누리당 일각의 법 개정 주장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견해"라며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을 방지,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을 1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법안 등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법 개혁안이 100년 만에 통과된 경우도 있다"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민생살리기 출정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민주주의-민생 살리기' 출정식

## 김한길 대표 전국 순회 투쟁 등 여권과 전면전 선포

민주당이 24일 원내외 병행투쟁의 제2라운드를 맞아 여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고, 나머지 126명의 의원들은 '스파르타식 합숙훈련'을 방불케 하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식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저는 전국 순회 길에 나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정식'을 마친 김 대표는 곧바로 첫 방문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실버문화센터로 향했다. 김 대표는 이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돌면서 마을회관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동식 풍찬노숙 투쟁'을 이어간다.

원내에서도 이날 오후 현판식을 시작으로 24시간 비상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소속 의원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 머물러야 함은 물론 하루에도 수차례의 공부모임과 상임위 회의 및 의제별 토론회, 점검회의 등 합숙훈련 수준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행동지침'도 하달했다. 24시간 국회 상주를 원칙으로 '주중 열공투쟁-주말 대국민 홍보투쟁'을 하라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감에 대비, 각종 회의 참석을 통해 '팀플레이'를 강화하고 이날 밤부터는 전 원내대표 주재로 매일 심야 점검회의도 열린다. 정기국회 기간 지역구 활동 자제령까지 내려졌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민주·민생 갈리기 24시간 국회 운영본부'와 종합상황실, 정책대응실, 언론홍보실 등을 신설했다. 이를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 및 민주주의 회복 등 5대 현안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1일 1이슈'를 선정, 최고위와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 홍보도 나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의원, 국회출입 광주·전남 기자 감담회

# "NLL대화록 실종, 친노세력 위협"

## "지사 출마 생각않지만 정치는 생물"

## "안철수, '제2의 문국현' 될 수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실종 문제는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같이 경고한 뒤 "그럴 경우 친노세력이 위험에 처함은 물론 분당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친노세력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의원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무모'한 것"이라며 "불 질러 놓고 도망간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 "'제2의 문국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하지 않고 서울 노원을 택하고 이번 10월 재보선에도 포항에 후보를 내야 하는데 안 한다고 했다"며 "그러고도 호남에만 공을 들이는 것은 될 데만 찾아 다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로 그것이 구정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계속한 데 대해 "감찰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계속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감사원장 문제 등을 보면 상황을 일단락짓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니까 국정 난맥이 온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지역 민심에 대해 "3자 회담 후 호남사람들이 '공무원 인사, 기업, 예산 등에 대해 기대하기 어렵다',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는 등 반응을 보였다"며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끊이지 않는 전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나간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혜자 의원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편파적"

최근 검정 통과된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사편찬위 검정심의회(이하 검정심의회) 검정 심사가 편파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24일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수정본과 본심사 적합판정본을 살펴본 결과, 검정심의회가 교과서의 역대 대통령 평가에 대해 이중 잣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검정심의회는 '미래엔' 교과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판사는 수정본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로 순화해 보완했다.

이에 반해 '미래엔' 교과서의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는 "그러나 빈부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조세 부담 증가와 기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서술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음에도 불구, 검정심의회는 수정·보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이명박정부에서의 '20-50클럽 가입'은 국내 일부 언론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사실 재검토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검정심의회가 보여준 심사 결과는 검정심의회 스스로 편향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본관 1층 유니클로등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본관 2층 브랜드피자 분양중
별관 1층 브랜드커피숍 및 미용실 분양중
별관 2층 한정식 분양중
별관 3층 일식 분양중
별관 4층 패밀리레스토랑 분양중
별관 지하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